

광주·전남 작년 무역흑자 77억달러

2년만에 9배 늘었다

자동차·반도체·가전 주도
수출 사상 최대 572억달러
올 600억달러 넘어설 듯



생긴 기업들이 생산설비 확충 및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 추가 고성장 촉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 증가세에 따라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액 규모는 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경우 세계 IT 제품 수요 확대 및 저가 스마트폰 생산 확대에 수출 단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자동차 역시 글로벌 시장의 점진적 수요 성장과 미국·중국 수출시장의 안정화 수요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지난해 '엔저 고과'로 인해 전년 대비 70%대에 그친 대(對) 일본 수출 회복은 관건으로 남았다. 광주는 16개 지자체 가운데 대 일본 수출 감소율이 -31.5%로, 대전(-49.2%)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대 일본 타이어 수출은 -32.8%에 달했고, 건전지 등도 23.4%나 수출 규모가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지역의 일본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3% 대에 불과하지만 절대적인 감소 수치가 높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환변동 보험 가입과 결제통화 변경, 해외 마케팅 등 수출다변화 정책으로 수출 감소율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원기자 exian@kwangju.co.kr

황우여 대표 "지방정부파산제 검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신년회견...구의회 폐지·교육감임명제 공식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공천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한 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의했다.

황 대표는 지방 발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지

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출발기 넘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외국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양대 과제로 밝힌 통일과 경제 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다녀 오거라”... 올 첫 입영 14일 오후 광주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열린 올해 첫 입영행사에서 한 신병이 어머니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다. 이날 입영행사를 통해 현역과 상근예비역 등 225명이 입소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양 불암산~하동 하동공원 섬진강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

전남도 내년 국비 요청 환경단체 등 반발 일 듯

정부와 전남도가 광양시 불암산~하동군 하동공원을 잇는 케이블카(3.5km)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례·남원·산청·함양군 등 지리산 인근 4개 시·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섬진강에도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이 일대에 케이블카가 난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는 “예산 300억원을 들여 불암산~하동공원을 잇는 가장 ‘섬진강 하늘길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케이블카 설치비 등으로 내년 3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한 뒤 오는 2016년에 케이블카 설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는 이 케이블카가 건립되면 영호남 관광과 증가와 동서 화합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의 80%를 민자로 유치해야 하고, 섬진강 구간 중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성호 국장은 “섬진강 케이블카는 안될 말고, 정부에서 부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일대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구례군이 국립공원 지리산 케이블카, 목포시가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리산권역인 경남산청과 함양, 전북 남원 등지도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박정열기자 kroh@

탄소배출권거래소 끝내 부산으로 나주혁신도시 유치 무산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기관으로 부산의 한국거래소(KRX)를 지정, 15일자로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전력거래소가 지정되도록 유치활동을 벌여온 전남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과 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배출권 거래 정보는 모두 한국거래소에 모이게 되고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상시 감시한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배출권 거래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부터 500여개 배출권 할

당 대상업체를 상대로 모의거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정기간 가격, 거래량 등의 정부통제로 탄소절감 시스템이 정착된 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전력거래소와 업무연계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행되세요!

다양한 즐거움! 싱가포르 여행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3박5일)

[AVPF01-ZA1] [하나투어주요] 앙코르왓 4일/5일 599,000원 ~	[AVPF01-ZA2] [하나투어주요] 앙코르왓 4일/5일 799,000원 ~
[AVPF01-ZA3] [하나투어주요] 앙코르왓 4일/5일 999,000원 ~	[AVPF01-ZA4] [하나투어주요] 앙코르왓 4일/5일 1,149,000원 ~

하나골프 부영CC/포키트라CC/양코르 54홀 캄보디아 씨엠립 4일/5일

[특급] 캄보디아 4일/5일 1,399,000원 ~	[초특급] 캄보디아 4일/5일 1,749,000원 ~
------------------------------	-------------------------------

인선출발 싱가포르 여행

[ASP109-SQK] 싱가포르 패키지 4일 1,399,000원 ~	[ASP109-SQ6] 싱가포르 패키지 4일 899,000원 ~
[ASA103-SQ1] 싱가포르 자유여행 4일 999,000원 ~	[ASA102-SQ4] 싱가포르 자유여행 4일 799,000원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영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족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주)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2014 학년도 **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4년
1. 6(월) ~ 17(금)까지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 605-1114